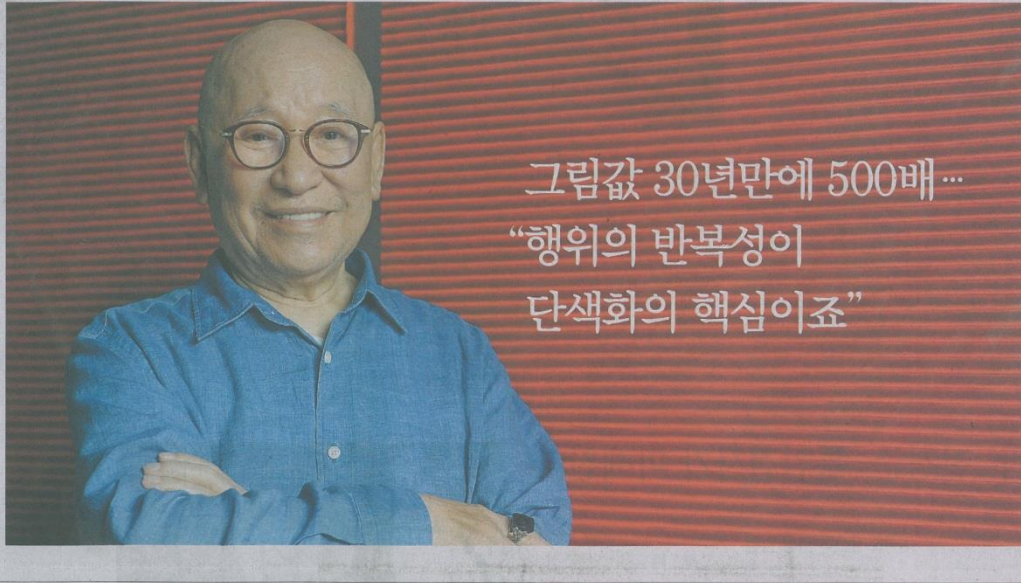


세계적 단색화 작가 박서보 "행위의 반복성이 단색화의 핵심"

July 7, 2016 | 조상인 기자

세계적 단색화 작가로 제2전성이 누리는 박서보 화백



그림값 30년만에 500배...
 “행위의 반복성이
 단색화의 핵심이죠”

▷300만원에서 15억원이 된 ‘연필모범’ 1982년 갤러리현대 전시 때 ‘연필 모범(모범) 연차 정승필로 반복적 선-곡선은 그른 작품’ 100호가 300만원이었는데도 안 팔렸죠. 2000년대 미술 시장이 한창 좋았을 때 3,000만원 정도 했었냐? 지금은 똑같은 게 15억원이더라고요.”

30여 년 만에 그림값은 500배로 뛰어들었다. 1980년대 한국 화단에서는 구상미술이 사랑 받았다. 이거면 한국화였다. ‘박서보’ 소리를 듣는 추상화는 비발 연역이 없었다. 그러나 외국에서 좀 알아줬다. 2006년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박서보의 ‘모범’은 3,000만원대에 거래됐다. 그러던 것이 ‘단색화’ 열풍을 타고 관심 끌기 시작해 지난해 11월 말 크리스티 홍콩 경매에서 1975년작 ‘연필 모범’은 약 14억원(수준도 포함)에 팔렸다.

지난해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전으로 별기에 보고·상징적으로 주창하고 국제갤러리가 후원한 ‘단색화’전은 박서보가 세계적 작가로 명성을 다지는 분수령이 됐다. 테미안 허스트 등 정승급 작가를 보유한 영국 최고의 화랑인 ‘화이트큐브’에서 올해 초 현판인 최초로 개인전을 열었다. 공식 개막 전에 작품은 이미 다 팔렸다. 화이트큐브는 내년 9~10월계 신작으로 또 한번 개인전을 열고 제2인생 상대다. 화이트큐브가 2년도 채 안돼 있던데 개인전을 여는 것도 극히 이례적이다. 프랑수아 페르망갤러리가 파리는 물론 뉴욕과 홍콩에서 연이어 박서보의 개인전을 연 것도 특별한 기는 마찬가지다.

“한평생 팔리지도 않는 그림을 그린 게 뒤늦게 빛을 보네요. 고요했던 어네스트 수년 쓰게되다 미처럼 천대 받던 그림이 세계적 전성기를 걸린 것 보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1958년 덕수궁미술

관에서 현대미술가협회 전시가 있었는데 당시 1,000호짜리 서너 점을 불인 초대형 작품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셋방살이 전전하며 이사 다니는데 돌 곳이 없어 결국 태화정만 물량이 두꺼웠던지 같은 안 타더라고요. 몇 년 뒤 그 동네를 지나는데 무허가 판잣집의 지붕이 된 내 그림이 보이자 땀나는 비록 가난한 판잣집에 살지만 담고 사는 그림을 위로로 살아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더라고요.”

▷행방이 되고 싶었던 화가에게 화가가 되었는다는 용어는 ‘저음에는 행방이 되고 싶었다’는 답이 돌아왔다. “내 어릴 때는 동대문 쪽에는 우익, 남산에는 좌익이 모여던 시절이었고 그게 유행이었어요. 그 시대에 행방가는 하나의 꿈이었죠. 하지만 6·25전쟁을 겪으며 그 꿈은 접었습니다.” 그림의 연연은 중화하고 시정 산성비전의 권위로 접기한 포스트 근조모전이 시작되었다. 향이 쓰던 말라붙은 물감이 뜨거워 물은 부어 소박하게 그려낸 포스터가 전후 1등상을 받았다. 또 그거 어린 시절을 보낸 안성에는 이렇듯 김은호가 활동했던 곳이라 그의 작품을 모사할 기회가 많기도 했다. 똑 같아 따라 그린 ‘미인도’를 두고 사람들이 구별 못 할 정도였으니 재주는 탁월했다. 그러나 홍익대 동양학과 합격증을 받아온 아들을 본 부인은 보름 가까이 식욕을 전폐하고 몸져누웠다.

“아버지가 총각 때부터 사주를 보면 삼재(喪妻) 후 둘째 부인이 낳은 셋째 아들이 세계적 인물이 될 거라는 예기를 주차례 들어주셨대요. 그게 바로 집니다. 별말기인 아버지의 뒤를 이을 것이라 기대했던 아들이 ‘완전’이 된다고 하니 많이 속상했었던 모양입니다.”

홍익대에서는 당대 최고의 동양화가인 장정인 삼평회와 고암 이응노를 은사로 만났다. 그러나 1학

300만원서 15억 된 ‘연필모범’ 1982년 전시때 한점도 안팔렸지만 단색화 열풍 타고 관심 끌기 시작 지난해 홍콩경매선 14억에 거래 英·佛 등서 개인전 초대도 잇달아

“변화하지 않으면 추락한다” “격정적 표현의 영포르멜 운동” 등 특정 화풍으로 불리는데 동의 안해 21세기 그림 과도한 공격성 벗어나 시대의 고뇌·고통 치유해줘야

년 첫 화가가 끝나기 전에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학교가 통제 부상으로 피란을 갔지만 그 두 교소는 함께하지 못했다. 차의 반 타의 반으로 서양 화풍로 이적해 만난 스승이 수학 길이었다. “윤형근(단색화 작가 중 하나이며 김환기는 제자이지 사위)이 김환기 선생님께 ‘아버지가 바쳐 보드라 놔주실 않습니까’ 하고 물으면 ‘너 정말 그림 볼 줄 모르느냐. 박서보만큼 흰색을 잘 쓰는 작가가 없다. 박서보가 가장 크게 남는다. 두고 봐라’ 하시고는 했어요.”

“아버지와 스승의 기대와 믿음이 박서보를 키웠다.

▷“변화하지 않으면 추락한다” 한국 추상미술의 역사를 이어보는데 한걸음의 최전선에는 늘 박서보가 있었다. 그는 1960년대 추경적 행위로 격정적 표현을 보여준 ‘영포르멜 운동’과 1970년대 단

색조 회화 경향인 ‘모노크롬’의 선두주자로 불린다. 그러나 자신은 영포르멜이나 모노크롬 화가로 불리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선을 긋는다. 특정한 유파에 속하기보다는 독자적인 화풍임을 강조한 까닭이다.

“모든 변화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은 분명합니다. 내 오랜 지인이 ‘변화하지 않으면 추락한다. 그러나 변화하면 추락한다’입니다. 앞장서서 변화해 갑니다. 하지만 만의 것을 결심지로 바꿔 세 것처럼 보여준다면 금방 추락합니다.”

1956년 박서보는 ‘한국전 선언’을 했고 이듬해선보인 작품이 국내 최초의 영포르멜로 꼽힌다. 박 화백은 “서양의 영포르멜은 정형성에 대한 저항을 뜻하는 비정형 예술이고 2차대전의 참혹함 속에서 탄생한 ‘논리’의 예술인 반면 내와 우리의 경우는 ‘자기표현의 예술’이었다”며 “6·25를 겪고 친구와 동거를 다 잃은 나는 목가적 풍경을 우리 것인 양 자위하는 국산(國産)에 반대하는 의미로 안료를 흙뿌리고 캔버스에 관자선 작품을 부수 형태를 없애는 식으로 일종의 동부림처럼 시대를 증언했던 것”이라고 말한다.

파리에 다녀온 뒤 1962년 모교 홍익대 교수가 됐으나 1966년 조지 네 갈등으로 사표를 던졌다. 고민하는 배우가 됐다.

“나에게 ‘너는 누구나’ 질문을 던지던 시절, 서양의 미술사적 가치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딱지는 대로 책을 읽었어요. 노자, 장자, 불경부터 황혼까지 읽고 보니 내가 동양에 대해 너무나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탐욕을 버리고 회화에만 한다. 그러는 것은 수선(修身)의 수단이고 그림은 수선과정의 찌꺼기라는 것까지 깨달았을 겁니다. 당시 ‘허상’과 ‘유전적’ 연작을 하

던 시기였는데 방위에 대한 깨달음을 어떻게 그림으로 구현할지 방법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박 화백에게 세 살짜리 아들의 꿈이 보였다. 형의 연필로 노트에 그려서 보지만 좀체 뜻대로 되지 않자 급기야 화선지 채널해 연필로 그렸던 것을 마구 문질러버리는 게 아닌가! 무릎을 치며 아들을 모방했다. 그 채널적인 비유기를 체화(體化)하는 게 쉽지 않았다. 책이나 고귀한 속에서 찾지 못하던 진리를 일상에서 찾아낸 것이 ‘연필 모범’의 시작이다. 박서보의 작품들 중 가장 높은 가격대에 거래되는 시지조다.

“그것이 소위 ‘단색화’지만 나는 다색주의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등장한 모노크롬(의 작기로 분류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연을 정복(征服)하는 게 쉽지 않았고, 책이나 고귀한 속에서 찾지 못하던 진리를 일상에서 찾아낸 것이 ‘연필 모범’의 시작이다. 박서보의 작품들 중 가장 높은 가격대에 거래되는 시지조다.

“그것이 소위 ‘단색화’지만 나는 다색주의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등장한 모노크롬(의 작기로 분류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연을 정복(征服)하는 게 쉽지 않았고, 책이나 고귀한 속에서 찾지 못하던 진리를 일상에서 찾아낸 것이 ‘연필 모범’의 시작이다. 박서보의 작품들 중 가장 높은 가격대에 거래되는 시지조다.

“그것이 소위 ‘단색화’지만 나는 다색주의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등장한 모노크롬(의 작기로 분류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연을 정복(征服)하는 게 쉽지 않았고, 책이나 고귀한 속에서 찾지 못하던 진리를 일상에서 찾아낸 것이 ‘연필 모범’의 시작이다. 박서보의 작품들 중 가장 높은 가격대에 거래되는 시지조다.

“그것이 소위 ‘단색화’지만 나는 다색주의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등장한 모노크롬(의 작기로 분류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연을 정복(征服)하는 게 쉽지 않았고, 책이나 고귀한 속에서 찾지 못하던 진리를 일상에서 찾아낸 것이 ‘연필 모범’의 시작이다. 박서보의 작품들 중 가장 높은 가격대에 거래되는 시지조다.

“그것이 소위 ‘단색화’지만 나는 다색주의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등장한 모노크롬(의 작기로 분류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연을 정복(征服)하는 게 쉽지 않았고, 책이나 고귀한 속에서 찾지 못하던 진리를 일상에서 찾아낸 것이 ‘연필 모범’의 시작이다. 박서보의 작품들 중 가장 높은 가격대에 거래되는 시지조다.

“그것이 소위 ‘단색화’지만 나는 다색주의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등장한 모노크롬(의 작기로 분류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연을 정복(征服)하는 게 쉽지 않았고, 책이나 고귀한 속에서 찾지 못하던 진리를 일상에서 찾아낸 것이 ‘연필 모범’의 시작이다. 박서보의 작품들 중 가장 높은 가격대에 거래되는 시지조다.

“단 한 작품만 감상하며 깊은 울림 느껴보세요”

박서보 화백 제2주서 ‘일점미술관’ 준비

“화가들은 누구나 자신의 이름을 단 미술관을 꿈꿨다. 박서보 화백이 준비 중인 미술관의 이름은 ‘일점 미술관’. 단 한 점의 작품만 전시하는 것은 미술관에 이른 것이다. 하나의 작품만 집중해서 감상하고 싶은 울림을 제대로 느껴보려는 취지다.

박 화백은 제2주서 환경권 저지리 한미산 서북쪽 중산간에 조성된 ‘저지리문화예술마을’에 자신의 집과 약간의 땅을 분양 받았다. 제2주서미술관이 마을의 중심에 있고 가솔로 ‘물방울 화가’ 김창영의 미술관이 들어설 예정인 이곳에 일점미술관이 동지기를 띠 계획이다. 기존의 공지고는 너무나 소박하다. “설계를 건축가 조승수에게 의뢰해 뒀습니다. 의도와 취지가 설명됐더라고요. 작은 미술관 한

쪽에 게스트하우스도 만들어 작품 관람서 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든 생각 깊어요.” 한편 박 화백이 태어난 날이 경북 예천이라 예천이나 인근 안동에서 ‘박서보 미술관’을 건립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있었다. 또 미술계 일각에서는 박 화백이 반평생 이상을 살았고 작업실을 두었던 서울 마포구가 대형 미술관 부지로는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내놓는다. 박서보는 모교인 홍익대를 졸업하고 미술대학장을 거쳐 명예교수가 되다가 지 서교동·합정동·성남동 등지를 거점으로 활동해왔다. /조상인기자 ccs@sedaily.com



He is... 1931년 경북 예천 1954년 홍익대 회화과 졸업 1962년 국립중앙도서관장 ‘행방적’ 개인전 1962-1997년 홍익대 회화과 교수 1970년 서울화랑 ‘유전적’ 개인전 1970-1977년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 1973년 도로 무라비시화랑 ‘모범’ 개인전 1986-1990년 홍익대 미술대학장 1994년 육문문화재단 수훈 1994년 서브미술문화재단 설립 2000년 홍익대 미술학 명예박사 2011년 은관문화훈장 수훈 2011년 부산시립미술관 개인전 2012년 대구미술관 개인전 2015년 뉴욕 페르망갤러리 개인전 2016년 런던 화이트큐브 개인전, 홍콩 페르망갤러리 개인전, 추오수 소장자·뉴욕 로렌트갤러리미술관, MoMA, 사카고아트인스티튜트, 갤러리 레오포스키 컬렉션, 프랑스 PNAO, 홍콩 옐름스(M+), 도로 현대미술관 등